

전문의료진 협진 ‘다학제 통합진료’…환자중심 암치료 최적

위·식도암·유방암·폐암 등 주요 암종 13개 전문 진료팀 운영
불안감 줄이고 치료 신뢰도 높여 환자 심리적 안정에 큰 도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암환자 수는 2022년 신규 발생 기준으로 28만2047명이다. 암 발생률은 10만 명당 287명, 암 사망률은 10만 명당 77명으로, 미국(각각 367명, 82.3명), 영국(307.8명, 98.3명)보다 낮은 수준이다. 또 암환자의 일반인 대비 5년 상대생존율은 2018~2022년 기준 72.9%로, 2001~2005년과 비교해 18.7%포인트 높아졌다.

암은 조기발견과 빠른 치료가 완치율과 직결되기에 시간은 치료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암환자의 경우 암 진단 후 1개월 이상 수술을 기다린 환자는 1개월 이내 수술을 받은 환자보다 사망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다. 따라서 최적의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택해 빨리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기존에는 암을 진단받은 환자가 외과·내과·영상의학과·병리과·방사선종양학과 등 다수의 진료과를 방문했으며, 진료과마다 별도 예약과 접수·대기·검사 등의 절차를 반복하면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모해야 했다. 또한 진료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 치료 결정이 지연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다양한 형태의 질환 출현과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가 늘고 있어 전문 진료과 간의 긴밀한 협진 체계가 필요해지고 있다. 조선대

병원 류성엽 암센터장으로부터 다학제 통합진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다학제 통합진료는 한 명의 환자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협력해 진단 및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의료 시스템으로 환자 개별 특성에 맞는 관련 진료과 전문의들이 한자리에 모여 환자 상태를 진단하고 최적의 치료법을 논의하는 환자중심의 맞춤형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이다.

기존의 협진은 진료와 치료를 하는 중에 다른 진료과에 추가적인 진료와 치료를 의뢰하는 방식이라면, 다학제 통합진료는 여러 진료과의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치료 방향을 논의하기 때문에 긴밀한 소통이 가능해 최적의 치료계획을 도출해 부작용 및 합병증까지 고려한 다각적 접근으로 치료 성공률을 보다 더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또 치료 방향을 논의하는 과정을 환자와 보호자가 직접 보고 들으며 참여할 수 있어 불안감을 줄이고 치료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등 심리적인 안정에 큰 도움이 된다. 검사와 수술 일정의 협의가 신속히 이루어지고 반복되는 검사와 진료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진료기간이 단축되고, 비용 부담도 줄이는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

무엇보다도 환자중심의 맞춤형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환자와 보호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현재 조선대병원은 주요 암종을 13개로 분류해



류성엽
조선대병원 암센터장

전문진료팀(위·식도암팀, 유방암팀, 대장암팀, 폐암팀, 갑상선암팀, 비뇨기암팀, 두경부암팀, 간담췌암팀, 혈액암팀, 부인암팀, 피부암팀, 근골격계암팀, 중추신경계암팀)을 운영하고 있다.

한 명의 환자를 위해 담당 진료과를 비롯해 암 치료와 관련된 중앙혈액내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영상의학과, 핵의학과 등 전문의들과 중앙전문간호사, 영양상담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팀을 이루어 질환별 특성과 환자 상태에 맞춘 전문적인 고 체계적인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각 팀은 환자의 검사 결과와 병기, 치료 이력 등을 통합적으로 검토해 불필요한 검사나 중복 진료를 방지하고, 보다 효과적인 치료 계획을 제시하여 최고의 치료 결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조선대병원 암센터 ‘다학제 통합진료’는 환자의 진료를 한 공간에서 여러 전문가가 동시에 논의하고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료의 질은 높이면서 환자가 겪는 불편과 부담은 최소화한다. 단 1회 방문으로 여러 전문과의 협진 진료를 받을 수 있어, 시간적 낭비는 물론 진료비, 교통비, 보호자 동반에 따른 간접비용까지 줄일 수 있다. 일반진료에는 여러 번의 접수와 진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병원의 수익성 측면을 고려한다면 다학제 통합진료



조선대병원은 암환자의 진료를 한 공간에서 여러 전문가가 동시에 논의하고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다학제 통합진료를 통해 환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를 활성화하는 것은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을 감수하면서도 조선대병원은 지역민의 건강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다학제 통합진료를 시작했던 2014년부터 현재까지 진단부터 치료 이후 완치까지 추적 관찰하며 환자를 끝까지 책임진다는 방침으로 운영되고 있다.

류성엽 조선대병원 암센터장(위장관외과 교수)은 “암은 아직까지 치료가 어렵고 수년간 사망 원인의 1위를 차지하는 질환이지만 여러 분야의 암 전문의가 모여 최선의 치료 방법을 찾아내는 ‘다학제

통합진료’는 단순한 협진을 넘어, 다양한 전문가가 실시간으로 협의하고 치료방향을 제시하는 ‘진짜 환자 중심의 진료’ 모델이며, 암 치료에 최적의 시스템”이라며 “조선대병원은 앞으로도 광주·전남지역 환자들이 서울에 가지 않고도 수준 높은 암 치료를 받아 더 나은 치료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선대병원 다학제 통합진료에 대한 것은 암센터(062-220-3418)로 문의하면 된다.

〈도움말: 류성엽 조선대병원 암센터장〉
/서승원 기자 swseo@kwangju.co.kr

“항암 환자, 부드러운 칫솔로 꾸준한 양치·구강보습 중요”

화순전남대병원 치과, 보건인력 대상
‘암 환자 위한 구강 건강관리’ 교육

화순전남대병원 치과가 최근 방문 보건 인력을 대상으로 ‘암 환자를 위한 구강 건강관리’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지역 필수 의료 협력 분야인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사업’ 일환으로 공공보건기관 전문가 역량 강화를 위해 시행했다. <사진>

이날 교육에는 광주·전남 27개 시군구 보건소 및 보건의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의 방문 보건인력 50여 명이 참석했다. ‘치아사랑, 건강한 삶, 행복한 인생’을 주제로 열린 이번 교육은 임혜순 교수와 고아라 치과위생사가 강사로 나서 환자 증례를 통해 암 환자들의 잔존치아 및 의치 관리법, 항암치료 관련 구강 위생관리 방법, 암 치료 시 치과 의사를 만나야 하는 이유 등을 교육했다.

특히 암 환자의 ▲구강 내 감염부위 검사 및 치료 ▲외상 위험요인 제거 ▲예방적 구강위생을 위한 환자 교육 및 훈련의 중요성 ▲구강 내 합병증 발생 시 대처법 ▲구강 통증과 구강점막염, 구강건조증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 방법을 설명해 호응을 얻었다.

임 교수는 항암치료 중인 환자를 위해서는 “구토 후 베이킹소다와 물로 양치해 위산에 의한 치아 법랑질 부식을 막아야 한다”며 “부드러운 칫솔을 이용한



꾸준한 양치와 구강 보습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두경부암 환자의 경우, 방사선 치료는 구강질환에 취약해 불소를 이용한 방사선 치아우식증 관리, 입 체조 운동법, 방사선 골괴사증 예방 등의 구체적인 관리 방법을 교육했다. 방사선 치료를 받은 소아암 환자는 두개·안면 및 치아 발육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고아라 치과위생사는 “구강 관리 소홀이 영양결핍, 흡인성 폐렴, 치매,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치매 환자 100만 시대를 맞아 구강 건강관리가 노인 삶의 질 향상의 첫걸음임을 강조했다. 또 잇솔질 방법, 치실과 치간사슬 사용법, 입 체조 운동

등을 시연했다.

임혜순 교수는 “암 치료 과정에서 구강건강은 종종 간과되기 쉽지만, 영양 섭취와 전반적인 삶의 질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지역 방문 보건 인력들이 재가암 환자의 구강건강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화순전남대학교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실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해 퇴원 후 지역사회로 복귀한 암환자들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서승원 기자 swseo@kwangju.co.kr

“광주에 AI 통합 돌봄 아파트 건립을”

광주시의사회 대선기획단 발대식
광주의료원 설립 등 6대 정책 제시

6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광주시의사회가 ‘AI 통합 돌봄 아파트 시범 사업’ 등 지역 보건의료 분야 6대 정책을 제안하며 치열한 대선공약 경쟁에 합류했다.

광주시의사회는 지난 9일 라마다플라자 총장 호텔에서 ‘대한의사협회 대선기획단 광주본부·보건의료인 연합(이하 대선기획단) 발대식 및 광주광역시 공약 선포식’을 갖고, 지역의료계 핵심 현안들을 제시했다.

이날 행사는 광주시의사회를 비롯해 광주지역 한의사회, 약사회, 간호조무사회, 작업치료사협회, 응급구조사협회, 방사선협회, 치과위생사협회를 비롯한 의료 관계자 그리고 국회의원 등 총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시의사회가 제안한 6대 정책은 ▲공공병원 적자 보전 제도와 ▲AI 통합 돌봄 아파트 시범사업 ▲호남권역 감염병전문병원 예산 지원 ▲광주의료원 설립 ▲조선대학교병원 새병원 건립 ▲전남대학교병원 새병원 국가 주도 추진이다.

이들 공약 중 특히 ‘AI 통합 돌봄 아파트 시범사업’은 AI 및 스마트 가전을 활용한 의료·요양·

돌봄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으로 광주를 ‘AI 헬스케어 중심도시’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나아가 국가적으로도 주거복지, 디지털 헬스케어, 다문화 통합을 아우르는 미래형 정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임을 강조했다. 이 사업은 스마트 돌봄 특화 아파트를 설계하고, AI 및 IoT 기반 건강관리·응급대응 시스템을 구축해 고독사, 급사 위험의 청년 및 혼자사는 노인, 장애인, 주거복지와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이다.

이로써 AI 아파트 활용을 통한 도시공간 재생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돌봄 계층의 건강한 삶 보장과 사회통합 기여, 통합돌봄 시스템 구축 등의 기대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날 김중선 의협대선기획단 지역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내 의료계가 전정터와 같은 어려운 시기이지만 이같은 고비를 슬기롭게 극복해가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면서 “앞으로 광주를 AI와 디지털 헬스케어를 활용한 AI 메디컬 시티로 조성해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정섭 광주시의사회 회장은 “다가올 대선에서 훌륭한 지도자가 전국민을 아우르는 지도력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루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승원 기자 swseo@kwangju.co.kr

그린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알로에 베라겔 즙액으로 400%

그린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유통전문판매원 : (주)그린알로에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광고심의 받은 광고를 입니다.